

의료봉사의 질을 개선하여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자

인민의 생명과 건강을 첫 자리에 놓고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同志께서는 다음과 같이
표시하시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와
같은 우월성을 국가가 인민
의 생명과 건강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돌보는 인민적인 보
건제도에서 뛰어난 나란다고
있습니다.』

얼마전 복장군을 찾았던 우리
에게 군당위원회의 일군은 한동
의 편지를 보여주었다.

『…아마도 친령육의 뜨거운
정성을 지닌 복장군인민병원
의 의료군들이 아니라면 저희
들은 두번 다시 소생하지 못하
었을 것입니다. 복장군원과, 의
사들인 손정철, 맹선우, 이혁주
선생님을 비롯한 이곳 의료일
군들의 저극한 정성 속에 기적
으로 전장을 회복하고자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보건제도
의 고마움이 다시금 눈물겹게
안겨옵니다.』

글을 읽어내려가는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달아올렸다.

편지의 주인공들을 만나보고
싶어 병원에 들린 우리에게
30여년 동안 의료일군으로 일
해온 내파 파장 청원복동부는
이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지난 3월 하순 어느날 병원
으로는 태수현립전진설사업
소의 여비령의 동지들이 의식
을 잊고 들어왔다.

당시 그들의 상태는 매우 위
험하였다. 순간이라도 지체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

원장 오철수, 부원장 고인충,

복장군인민병원의 의료일군들

파장 청원복동부를 비롯한 병원
의료집단은 즉시 협의회를 진행
하고 치료전투에 달라붙었다.

우리 당이 아끼고 사랑하는 인
민의 생명을 지켜 진정한 치료
전투를 벌리는 이들의 모습은
그대로 적전장의 용사들을 방불
케 하였다.

두 tuần 충혈이 지고 일출엔
피로의 기색이 럭력에도 순간의
위엄도 없이 긴장한 치료전투를
진행한 보람이 있어 환자들이
되게 되었다.

인간생명의 기사로서의 사명감
을 다시금 자각하며 주저없이 수
술을 시작한지 얼마 후 병원이
돌비에 뛰드는 병동이 고고
한원에 까지 가느라 시간이 지체
되면 환자의 상태는 더욱 악화
되지 않았는가.

이들은 잠시도 마음을
놓지 못했다. 병원의 의료일군
들은 환자들의 임uat을 물구는
영양음식을 준비하고자 고
일에 매여주며 그들의 영양개선
을 위해 무진애를 썼다.

인민의 생명과 건강을 첫 자리
에 놓고 병원을 비롯한 병원
의료군들이 아니라면 저희
들은 두번 다시 소생하지 못하
었을 것입니다. 복장군원과, 의
사들인 손정철, 맹선우, 이혁주
선생님을 비롯한 이곳 의료일
군들의 저극한 정성 속에 기적
으로 전장을 회복하고자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보건제도
의 고마움이 다시금 눈물겹게
안겨옵니다.』

글을 읽어내려가는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달아올렸다.

편지의 주인공들을 만나보고
싶어 병원에 들린 우리에게
30여년 동안 의료일군으로 일
해온 내파 파장 청원복동부는
이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감동없이는 끝을 수 없는 편지
들은 우리에게 빠진 한
산모를 위해 바쳐온 파장 안창호,
당당의사, 방광육동부를 비
롯한 산부인과 의료일군들에 대
한 이야기도 실려 있었다.

지난 3월초 병원에는 인포란팡
재단등의 인력들이 실려왔다.
상급병원으로 시급히 파송해야 하
는가 미는가 하는 책임적인 결심

병원의 외과 의료일군들의 이야
기는 또 얼마나 사람들의 거울
을 뜨겁게 해주는 것인가.

분원장 박재문동부를 비롯한
치과원원 현장치료대원들에 의해
성의 있는 보혈의료봉사를 받으며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의 고
마음을 더듬기 깊이 느꼈다는 복

창화리발전련합기기업소와 인포란
팡, 최인한팡 등 동계급의 편지들
은 이곳 의료일군들의 뜨거운 인
간애를 가슴뜨겁게 전하고 있다.

이것은 인민의 충복으로 살기
위해 아래글과 애쓰는 복장군인
민병원의 의료일군들이 마쳐가는
열렬한 사랑과 지극한 정성을

높이 평가되는 고마운 우리
세상에서 제일이라고.

인민들의 건강을 책임진 침원

사진: 본사기자 신윤철

그로부터 얼마후 커버운 쟁쟁

이를 안고 병원

을 나서며 그

녀성은 차석들

을 조국을 얻어

새 떠날 때

나라의 기둥강

으로 풀풀히 키

울불한 병

을 데려온

영양을 허락해 어

밀려온 꿈이 멎었다.

그로부터 얼마후 커버운 쟁쟁

이를 안고 병원

을 나서며 그

녀성은 차석들

을 조국을 얻어

새 떠날 때

나라의 기둥강

으로 풀풀히 키

울불한 병

을 데려온

영양을 허락해 어

밀려온 꿈이 멎었다.

그로부터 얼마후 커버운 쟁쟁

이를 안고 병원

을 나서며 그

녀성은 차석들

을 조국을 얻어

새 떠날 때

나라의 기둥강

으로 풀풀히 키

울불한 병

을 데려온

영양을 허락해 어

밀려온 꿈이 멎었다.

그로부터 얼마후 커버운 쟁쟁

이를 안고 병원

을 나서며 그

녀성은 차석들

을 조국을 얻어

새 떠날 때

나라의 기둥강

으로 풀풀히 키

울불한 병

을 데려온

영양을 허락해 어

밀려온 꿈이 멎었다.

그로부터 얼마후 커버운 쟁쟁

이를 안고 병원

을 나서며 그

녀성은 차석들

을 조국을 얻어

새 떠날 때

나라의 기둥강

으로 풀풀히 키

울불한 병

을 데려온

영양을 허락해 어

밀려온 꿈이 멎었다.

그로부터 얼마후 커버운 쟁쟁

이를 안고 병원

을 나서며 그

녀성은 차석들

을 조국을 얻어

새 떠날 때

나라의 기둥강

으로 풀풀히 키

울불한 병

을 데려온

영양을 허락해 어

밀려온 꿈이 멎었다.

그로부터 얼마후 커버운 쟁쟁

이를 안고 병원

을 나서며 그

녀성은 차석들

을 조국을 얻어

새 떠날 때

나라의 기둥강

으로 풀풀히 키

울불한 병

을 데려온

영양을 허락해 어

밀려온 꿈이 멎었다.

그로부터 얼마후 커버운 쟁쟁

이를 안고 병원

을 나서며 그

녀성은 차석들

을 조국을 얻어

새 떠날 때

나라의 기둥강

으로 풀풀히 키

울불한 병

을 데려온

영양을 허락해 어

밀려온 꿈이 멎었다.

그로부터 얼마후 커버운 쟁쟁

이를 안고 병원

을 나서며 그

녀성은 차석들

을 조국을 얻어

새 떠날 때

나라의 기둥강

으로 풀풀히 키

울불한 병

을 데려온

영양을 허락해 어

밀려온 꿈이 멎었다.

그로부터 얼마후 커버운 쟁쟁

이를 안고 병원

을 나서며 그

녀성은 차석들

을 조국을 얻어

새 떠날 때

나라의 기둥강

으로 풀풀히 키

울불한 병

을 데려온

영양을 허락해 어

밀려온 꿈이 멎었다.

그로부터 얼마후 커버운 쟁쟁

이를 안고 병원

을 나서며 그

녀성은 차석들

을 조국을 얻어

온 겨레를 대단결에로 부르는 불멸의 대강

오늘은 민족의 영원한 태양이신 위대한 김일성 동지께서 불후의 고전으로 흑자인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자』를 발표하신 지 25돐이 되는 날이다. 뜻깊은 이 날을 맞는 북파 남, 해외 온 겨레의 가슴가슴은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오로지 민족의 대단결과 조국통일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신 어버이 수령님에 대한 한 사람의 존경과 뜨거운 경모의 정에 훌쩍여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同志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나라가 분별되어서는 안된다며 반드시 민족공동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우리 민족자체의 힘에 의하여 하나의 조선으로 통일되어야 한다는 것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시고 한的愿望 구현하여온 주체적인 조국통일로선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작에서 배제되거나 차단되는 조작과 함께, 대화를 적극 발전시킬 때 대한 문제, 조국통일을 위한 무쟁에서 전민족적인 평화를 강화하는 문제, 조국통일을 위하여 두루하는 북파 남, 해외의 모든 정당, 단체와 조직들, 각각 각종 종교들의 조직적인 협력을 실현함에 대한 문제 등 민족대단결을 실현하기 위한 과업과 방도에 대해 서로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었다.

참으로 어버이 수령님의 조작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자』는 민족문제, 통일문제에 대한 주체적 협력에 기초하여 전 민족의 대단결을 실현할 수 있는 사상과 철학을 제시함으로써 거래를 자주통일의 힘에 치우쳐 맹쳐나서서 하는 민족대단결의 기치, 불멸의 통일대강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고전적으로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자』는 그 정당성과 견인력으로 하여 지난 25년간 세계에 폭넓은 영향을 미쳤다.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조작에서 온 민족이 합쳐하고 단결하면서 그것이 곧 조국통일이라는 대 허락해주시었다.

조작은 민족대단결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의 기본원칙에 의거하고 우리 민족이 조국통일의 주체로서의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며 나라로 굽어나가야 한다는 사실에 집착되었던 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작에

의 위력으로 내외반통일세력들의 악랄한 짓들을 걸쳤마다 짓부시며 파악한 부정을 벌려왔다.

불신과 대결의 북남관계를 민족적화와 단합의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키고 일찌기 있어 본적이 없는 민족사적 사변들을 이목한 6·15통일시대의 힘찬 전진은 어버이 수령님의 민족대단결사상과 조선의 정당성과 생활력의 힘있는 파시로 된다. 특히 한 사상의 본래의 지와 한없이는 보유역, 열렬한 조국과의 민족애를 지니고 민족대단결 실현의 앞길을 밝히면서 조국통일을 주구하에 외세와 함께 민족대단결을 주구하면서 조국통일을 위한 무쟁으로서 조국통일을 위한 협력과 단합으로써 우리 민족사와 더불어 영원히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작에 대한 주체적 협력에 기초하여 전 민족이 합쳐나서서 하는 민족대단결을 실현하기 위한 과업과 방도에 대해 서로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었다.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조작에

서 온 민족이 합쳐하고 단결하면서 그것이 곧 조국통일이라는 대 허락해주시었다.

조작은 민족대단결은 조국의

의 위력으로 끌어들이고 무모한 불장난을 벤질나에게 벌려놓는 한편 그 누구의 『연희』와 『연희』를 베여이며 만공화국 『연희』 소동에 침묘하게 베어 달리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의 고도미씨일 요격제거인 『연희』 베지를 풀고 결정함으로써 남조선을 대국들의 핵대결장으로 내닫기고 민족의 머리위에 침몰하는 재난을 불어오르고 밤울하고 있다.

박근혜대당이 북남사자의 대회와 관계개선이 아니라 대결과 전쟁으로 밝혀졌다. 최근에는 미국과의 미주전쟁에서 북남선언을 위하여 조국통일위업의 승리를 확정화하고 있다.

오늘 민족대단결위업의 전투에는 또 한분의 철세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同志에서 세계

에 놓이게 한 장본인들이 그 누구의 『정전협정』의 재발을 막았다.

그는 그 누구의 『정전협정』의 재발을 막았느냐 하고 칭실수설한 것이다. 상전의 위를 따라 피폐국무총리라는 자도 그 무슨 『물질』 사령관의 모자를 쓰고 기념식에 나타난 남조선장관 미군사령관이라는 자가 정전협정『연희』 정의의 재발을 막았다.

그는 그 누구의 『정전협정』의 재발을 막았느냐 하고 칭실수설한 것이다. 상전의 위를 따라 피폐국무총리라는 자도 그 무슨 『물질』 사령관의 모자를 쓰고 기념식에 나타난 남조선장관 미군사령관이라는 자가 정전협정『연희』 정의의 재발을 막았다.

그는 그 누구의 『정전협정』의 재발을 막았느냐 하고 칭실수설한 것이다.

그는 그 누구의 『정전협정』의 재발을 막았느냐 하고 칭실수설한 것이다.

그는 그 누구의 『정전협정』의 재발을 막았느냐 하고 칭실수설한 것이다.

그는 그 누구의 『정전협정』의 재발을 막았느냐 하고 칭실수설한 것이다.

그는 그 누구의 『정전협정』의 재발을 막았느냐 하고 칭실수설한 것이다.

그는 그 누구의 『정전협정』의 재발을 막았느냐 하고 칭실수설한 것이다.

그는 그 누구의 『정전협정』의 재발을 막았느냐 하고 칭실수설한 것이다.

그는 그 누구의 『정전협정』의 재발을 막았느냐 하고 칭실수설한 것이다.

그는 그 누구의 『정전협정』의 재발을 막았느냐 하고 칭실수설한 것이다.

그는 그 누구의 『정전협정』의 재발을 막았느냐 하고 칭실수설한 것이다.

그는 그 누구의 『정전협정』의 재발을 막았느냐 하고 칭실수설한 것이다.

그는 그 누구의 『정전협정』의 재발을 막았느냐 하고 칭실수설한 것이다.

그는 그 누구의 『정전협정』의 재발을 막았느냐 하고 칭실수설한 것이다.

그는 그 누구의 『정전협정』의 재발을 막았느냐 하고 칭실수설한 것이다.

그는 그 누구의 『정전협정』의 재발을 막았느냐 하고 칭실수설한 것이다.

그는 그 누구의 『정전협정』의 재발을 막았느냐 하고 칭실수설한 것이다.

그는 그 누구의 『정전협정』의 재발을 막았느냐 하고 칭실수설한 것이다.

그는 그 누구의 『정전협정』의 재발을 막았느냐 하고 칭실수설한 것이다.

그는 그 누구의 『정전협정』의 재발을 막았느냐 하고 칭실수설한 것이다.

그는 그 누구의 『정전협정』의 재발을 막았느냐 하고 칭실수설한 것이다.

그는 그 누구의 『정전협정』의 재발을 막았느냐 하고 칭실수설한 것이다.

그는 그 누구의 『정전협정』의 재발을 막았느냐 하고 칭실수설한 것이다.

그는 그 누구의 『정전협정』의 재발을 막았느냐 하고 칭실수설한 것이다.

그는 그 누구의 『정전협정』의 재발을 막았느냐 하고 칭실수설한 것이다.

그는 그 누구의 『정전협정』의 재발을 막았느냐 하고 칭실수설한 것이다.

그는 그 누구의 『정전협정』의 재발을 막았느냐 하고 칭실수설한 것이다.

그는 그 누구의 『정전협정』의 재발을 막았느냐 하고 칭실수설한 것이다.

그는 그 누구의 『정전협정』의 재발을 막았느냐 하고 칭실수설한 것이다.

그는 그 누구의 『정전협정』의 재발을 막았느냐 하고 칭실수설한 것이다.

그는 그 누구의 『정전협정』의 재발을 막았느냐 하고 칭실수설한 것이다.

그는 그 누구의 『정전협정』의 재발을 막았느냐 하고 칭실수설한 것이다.

그는 그 누구의 『정전협정』의 재발을 막았느냐 하고 칭실수설한 것이다.

그는 그 누구의 『정전협정』의 재발을 막았느냐 하고 칭실수설한 것이다.

그는 그 누구의 『정전협정』의 재발을 막았느냐 하고 칭실수설한 것이다.

그는 그 누구의 『정전협정』의 재발을 막았느냐 하고 칭실수설한 것이다.

그는 그 누구의 『정전협정』의 재발을 막았느냐 하고 칭실수설한 것이다.

그는 그 누구의 『정전협정』의 재발을 막았느냐 하고 칭실수설한 것이다.

그는 그 누구의 『정전협정』의 재발을 막았느냐 하고 칭실수설한 것이다.

그는 그 누구의 『정전협정』의 재발을 막았느냐 하고 칭실수설한 것이다.

그는 그 누구의 『정전협정』의 재발을 막았느냐 하고 칭실수설한 것이다.

그는 그 누구의 『정전협정』의 재발을 막았느냐 하고 칭실수설한 것이다.

그는 그 누구의 『정전협정』의 재발을 막았느냐 하고 칭실수설한 것이다.

그는 그 누구의 『정전협정』의 재발을 막았느냐 하고 칭실수설한 것이다.

그는 그 누구의 『정전협정』의 재발을 막았느냐 하고 칭실수설한 것이다.

그는 그 누구의 『정전협정』의 재발을 막았느냐 하고 칭실수설한 것이다.

그는 그 누구의 『정전협정』의 재발을 막았느냐 하고 칭실수설한 것이다.

그는 그 누구의 『정전협정』의 재발을 막았느냐 하고 칭실수설한 것이다.

그는 그 누구의 『정전협정』의 재발을 막았느냐 하고 칭실수설한 것이다.

그는 그 누구의 『정전협정』의 재발을 막았느냐 하고 칭실수설한 것이다.

그는 그 누구의 『정전협정』의 재발을 막았느냐 하고 칭실수설한 것이다.

그는 그 누구의 『정전협정』의 재발을 막았느냐 하고 칭실수설한 것이다.

그는 그 누구의 『정전협정』의 재발을 막았느냐 하고 칭실수설한 것이다.

그는 그 누구의 『정전협정』의 재발을 막았느냐 하고 칭실수설한 것이다.

그는 그 누구의 『정전협정』의 재발을 막았느냐 하고 칭실수설한 것이다.

그는 그 누구의 『정전협정』의 재발을 막았느냐 하고 칭실수설한 것이다.

그는 그 누구의 『정전협정』의 재발을 막았느냐 하고 칭실수설한 것이다.

그는 그 누구의 『정전협정』의 재발을 막았느냐 하고 칭실수설한 것이다.

그는 그 누구의 『정전협정』의 재발을 막았느냐 하고 칭실수설한 것이다.

그는 그 누구의 『정전협정』의 재발을 막았느냐 하고 칭실수설한 것이다.

그는 그 누구의 『정전협정』의 재발을 막았느냐 하고 칭실수설한 것이다.

그는 그 누구의 『정전협정』의 재발을 막았느냐 하고 칭실수설한 것이다.

그는 그 누구의 『정전협정』의 재발을 막았느냐 하고 칭실수설한 것이다.

그는 그 누구의 『정전협정』의 재발을 막았느냐 하고 칭실수설한 것이다.

그는 그 누구의 『정전협정』의 재발을 막았느냐 하고 칭실수설한 것이다.

그는 그 누구의 『정전협정』의 재발을 막았느냐 하고 칭실수설한 것이다.

그는 그 누구의 『정전협정』의 재발을 막았느냐 하고 칭실수설한 것이다.

그는 그 누구의 『정전협정』의 재발을 막았느냐 하고 칭실수설한 것이다.

그는 그 누구의 『정전협정』의 재발을 막았느냐 하고 칭실수설한 것이다.

그는 그 누구의 『정전협정』의 재발을 막았느냐 하고 칭실수설한 것이다.

그는 그 누구의 『정전협정』의 재발을 막았느냐 하고 칭실수설한 것이다.

그는 그 누구의 『정전협정』의 재발을 막았느냐 하고 칭실수설한 것이다.

그는 그 누구의 『정전협정』의 재발을 막았느냐 하고 칭실수설한 것이다.

그는 그 누구의 『정전협정』의 재발을 막았느냐 하고 칭실수설한 것이다.

그는 그 누구의 『정전협정』의 재발을 막았느냐 하고 칭실수설한 것이다.

그는 그 누구의 『정전협정』의 재발을 막았느냐 하고 칭실수설한 것이다.

그는 그 누구의 『정전협정』의 재발을 막았느냐 하고 칭실수설한 것이다.

그는 그 누구의 『정전협정』의 재발을 막았느냐 하고 칭실수설한 것이다.

그는 그 누구의 『정전협정』의 재발을 막았느냐 하고 칭실수설한 것이다.

그는 그 누구의 『정전협정』의 재발을 막았느냐 하고 칭실수설한 것이다.

그는 그 누구의 『정전협정』의 재발을 막았느냐 하고 칭실수설한 것이다.

그는 그 누구의 『정전협정』의 재발을 막았느냐 하고 칭실수설한 것이다.

그는 그 누구의 『정전협정』의 재발을 막았느냐 하고 칭실수설한 것이다.

그는 그 누구의 『정전협정』의 재발을 막았느냐 하고 칭실수설한 것이다.

그는 그 누구의 『정전협정』의 재발을 막았느냐 하고 칭실수설한 것이다.

그는 그 누구의 『정전협정』의 재발을 막았느냐 하고 칭실수설한 것이다.

그는 그 누구의 『정전협정』의 재발을 막았느냐 하고 칭실수설한 것이다.

